

< 要 約 >

I. APEC의 性格과 韓國 經濟

○ (基本 性格)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 역내 경제공동체의 성과와 혜택이 특정 지역에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지양
- 융통성있는 일방주의(Concerted Unilateralism)
- 각국이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취함

○ (우리나라의 寄與)

- 89년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
- 91년 APEC의 헌장적인 '서울선언'의 채택에 결정적 역할
- 초대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국을 맡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

○ (APEC과 韓國 經濟)

-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과의 경제 교류 비중은 절대적 수준임
- 교역면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의 68.1%, 수입의 69.3%를 APEC에 의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APEC 투자 진출 건수는 전체 투자 진출 건수의 92.9%, 투자 금액은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음

II. APEC의 主要 懸案과 展望

○ (最近 論議 動向)

- APEC의 현안
- 95년 오사카 APEC에서 채택된 Action Agenda(실천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Action Plan(실천계획) 마련
- 96년 12월에 개최되는 WTO 각료 회의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강구
- APEC 고위실무자회의(96년 들어 4차례 개최)
- 각국 실천 계획의 투명성,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작성 기준 확정
- 공동 실천 계획에서 각 회원국별 기여 방안 확정
- APEC 기업인 포럼(ABF) 개최를 결의

○ (96 필리핀 APEC 정상 회의)

- 마닐라선언(MAPA)를 통한 "지속적 성장"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천명

- 경제기술협력의 강조를 통하여 개도국 지원
-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민관 합동 체제 구축
- APEC 발전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정보 통신 제품 무관세화 원칙 합의, 사증없이 회원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APEC 경제인 여행 제도 시범 실시 및 99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보류 등을 합의

○ (APEC의 向後 展望)

- APEC은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내부적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APEC을 둘러싼 미·일·아세안·중국 4극 체제의 이해 관계 대립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III. APEC과 우리의 對應 方向

○ (필리핀 APEC후의 期待)

- 96년 필리핀 APEC의 핵심 의제는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각국의 실천 계획(Action Plan)을 확정, 채택하는 것이었음
- 우리나라는 OECD 가입으로 인한 개방 일정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APEC에서 추가적으로 개방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음
- APEC 비즈니스 포럼(ABF)은 우리 기업가들이 APEC 회원국의 정상 및 기업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場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 APEC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가장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ABF에 적극 참여, APEC의 향후 방향 설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

○ (APEC의 活用)

- APEC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기구이므로 APEC에 적극 참여·활용할 필요가 있음
- APEC의 기본 방향인 「개방적 지역주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
- APEC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ASEM(Asia-Europe Meeting)을 통한 유럽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세계 경제의 단일화에 기여
- 미·일·중·ASEAN에 의한 4극 체제의 대립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중재자 역할 수행,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位相을 제고
- 신흥공업국의 선두 주자로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 수행
- 동북아 안보 체제의 유지와 남북 문제의 해결의 場으로 적극 활용
- 정부와 기업이 연계한 실리적 외교를 전개

I. APEC의 性格과 韓國 經濟

- (基本 性格)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 역내 경제공동체의 성과와 혜택이 특정 지역에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지양
 - 융통성있는 일방주의(Concerted Unilateralism)
 - 각국이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취함
- (우리 나라의 寄與)
 - 89년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
 - 91년 APEC의 현장격인 '서울 선언'의 채택에 결정적 역할
 - 초대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국을 맡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 활화에 기여
- (APEC과 韓國 經濟)
 - 우리 나라와 APEC 회원국과의 경제 교류 비중은 절대적 수준임
 - 교역면에서 우리 나라는 수출의 68.1%, 수입의 69.3%를 APEC에 의 존하고 있음
 - 對APEC 투자 진출 건수는 전체 투자 진출 건수의 92.9%, 투자 금액 은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음

1. APEC의 基本性格

APEC의 기본 성 격은 「개방적 지 역주의」와 「융통 성있는 일방주의」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기술·경제 협력의 성과와 혜 택이 특정 지역에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지양
 - 즉 개방적인 지역 경제 협력체의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음
- 「융통성 있는 일방주의」(Concerted Unilateralism)
 - 각국이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 치를 취하되 이를 서로 논의해서 전체적으로는 조화롭 게 나가자는 의미를 지님

- 일반적으로 '지역주의'와 '개방정신', '일방주의'와 '융통성'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
 - 따라서 APEC이 이같은 모순과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곧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을 향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는 것임

2.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寄與

우리나라는 APEC 창설과 함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는 APEC의 창설과 발전에 크게 기여
 - 89년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
 - 91년 서울 회담에서는 중국, 대만, 홍콩을 동시에 가입시킴
 - 또한 APEC의 현장적인 '서울 선언'을 채택케 함
 - 93년 시애틀 회담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통 분모를 찾는 데 기여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기초 조사와 APEC의 차세대 프로그램을 주관
 - 95년에는 역내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테크노마트」를 대전에서 개최
 - APEC내 핵심 협의기구인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을 맡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크게 기여

3. APEC과 韓國 經濟

우리 나라와 亞·太 지역간의 경제 교류 비중은 절대적임

-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과의 경제 교류 비중은 거의 절대적 수준임
 - 95년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의 68.1%, 수입의 69.3%를 APEC에 의존하고 있음
 - 전통적 교역국인 미국과 일본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와 19.1%임
 - 95년 對ASEAN(베트남 제외)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33.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99억 3천만 달러로 28.6% 증가

- 對중국 수출액은 95년 91억 4천 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47.4% 증가, 수입액은 74억 달러로 35.5% 증가함
- 경제 협력은 투자 교류에서 더욱 활발함
- 95년 아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 진출 건수는 전체 투자 진출 건수의 92.9%, 금액면에서는 전체 투자 금액의 67.9%를 차지

<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류 현황(1995년) >

(단위: 백만달러, %)

국 가	수 출 (A)	수 입 (B)	교역규모 (A+B)	비 중	해외투자	비 중
미 국	24,131	30,404	54,535	20.9	534.3	17.5
캐 나 다	1,790	2,604	4,394	1.7	11.6	0.4
멕시코	941	307	1,248	0.5	40.1	1.3
NAFTA 소계	26,862	33,315	60,177	23.1	586.0	19.2
인도네시아	2,958	3,325	6,283	2.4	200.4	6.6
말레이시아	2,951	2,515	5,466	2.1	114.0	3.7
태 국	2,428	936	3,364	1.3	21.7	0.7
싱가포르	6,689	2,168	8,857	3.4	21.6	0.7
필리핀	1,493	611	2,104	0.8	57.0	1.7
부르나이	23	376	399	0.2	1.9	0.1
ASEAN 소계	16,542	9,931	26,473	10.2	416.6	13.5
호 주	1,569	4,897	6,466	2.5	31.0	1.0
뉴질랜드	202	817	1,019	0.4	2.0	0.1
CER 소계	1,771	5,714	7,485	2.9	33.0	1.1
중 국	9,144	7,401	16,545	6.4	814.4	26.6
대 만	3,882	2,564	6,446	2.5	2.7	0.1
홍 콩	10,682	838	11,520	4.4	85.7	2.8
일 본	17,049	32,606	49,655	19.1	105.1	3.4
파푸아뉴기니아	15	223	238	0.1	0.2	0.0
칠 레	637	1,021	1,658	0.6	32.6	1.1
APEC	86,584	93,613	180,197	69.3	2,076.3	67.9
세 계	125,058	135,119	260,177	100.0	3,058.9	100.0

자료: 대한무역협회, 「무역통계 1996」

II. APEC의 主要 懸案과 展望

○ (最近 論議 動向)

- 95년 오사카 APEC에서 채택된 Action Agenda(실천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Action Plan(실천 계획) 마련
- 96년 12월에 개최되는 WTO 각료 회의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강구

○ (96 필리핀 APEC 정상 회의)

- MAPA의 승인을 통한 지속적 성장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천명
- 경제기술협력의 강조를 통하여 개도국 지원
-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민관 합동 체제 구축
- APEC 발전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정보 통신 관련 무관세화 원칙 합의, 사증없이 회원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APEC 경제인 여행 시범 실시 및 99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보류 등을 합의

○ (APEC의 向後 展望)

- APEC은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내부적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APEC을 둘러싼 미·일·아세안·중국 4국 체제의 이해 관계 대립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1. 最近 論議 動向

96 필리핀 APEC의 기본 과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채택임

○ 96 필리핀 APEC의 과제

- 95년 오사카 APEC에서 채택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Action Agenda(實踐指針)」에 따라 구체적인 「Action Plan(실천 계획)」, 즉 마닐라선언(MAPA : Manila Action Plan for APEC)의 채택
- 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 회의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강구
- APEC에의 각국 기업인 참여 확대 및 비회원국의 APEC 신규 가입 문제 타결

96년 4차례에 걸쳐 고위 실무자 회의를 개최

○ APEC 고위 실무자 회의(SOM)

- 96년 4차례에 걸쳐 APEC 고위 실무자 회의 개최
- 각 회원국이 작성중인 개별실천계획 (IAP: Individual Action Plan)의 투명성, 형평성 제고를 위한 IAP 작성 기준(Format Guidelines)을 확정
- 15개 무역·투자 자유화 과제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동실천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에서는 회원국별 기여 방안을 확정
- 개최국 필리핀은 APEC에의 기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APEC 기업인 포럼(ABF: APEC Business Forum)을 APEC 정상 회의 및 각료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 각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음

< APEC 회원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국별실천계획(IAP) >

한 국	· 수입할당 및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1999), 기본통신 출자 규제 완화, 92개 업종 투자 자유화 추진
미 국	· 통신 관련 제품 관세철폐 교섭 추진, 평균 관세율을 3.5%로 인하(2004년), APEC 역내 국가들과 쌍무적 투자 협정 체결, 농산물 수출 보조금 삭감*
일 본	· UR에서 합의한 관세율 이행, 기본통신 분야 외국인 참여 규제완화
중 국	· 외국인 증권사의 지점 인가, 외국계 보험사 지점 인가 확대, 관세율 15%(단순 평균)로 인하, 지적재산권 관련법 및 독점금지법 개정
호 주	· 기본통신 시장 개방
대 만	· WTO 가입을 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 추진, 외국자본 참여 규제 리스트 수정, 장거리통신·국제통신서비스 자유화*
홍 콩	· UR 합의 사항 완전 이행
필 리 핀	·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의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5%로 인하(2004년)
태 국	· 현지 부품 조달 요건의 단계적 철폐
인도네시아	· 관세의 단계적 삭감
말레이시아	· 투자 관련법 투명성 제고
싱가포르	· 전체 품목의 85%에 대해 관세율을 6.5% 이하로 인하
캐 나 다	· UR 합의 사항 이행, 관세율 인하
칠 레	· 모든 품목의 관세율을 0%로 인하(2010년)
멕 시 코	· 컴퓨터에 대한 관세 철폐*

자료 : APEC Secretariat, Internet 자료

주 : 표시없는 항목은 2000년까지, *표는 선진국의 경우 2010년, 개도국은 2020년 실시

2. 96 峴리핀 APEC 頂上 會議

MAPA의 승인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천명

○ MAPA 승인

- 11월 25일 제4차 APEC 정상 회의에서 「APEC 경제지도자 선언」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 공동체 달성과 지속적인 성장 및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천명
-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각국의 「개별 실천 계획」(IAP)을 종합한 「마닐라 실행 계획」(MAPA)를 승인
- MAPA의 승인으로 회원국들의 관세를 2000년까지 15%선까지 인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역내 투자 및 무역 활성화의 토대 마련

경제 협력의 강조를 통한 개도국 지원

○ 경제 기술 협력 방안 모색

- 각료 회의에서 채택한 「경제 협력 및 개발 강화에 관한 틀」을 정상 회의에서 승인
 -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경제 인프라 강화, 미래 기술 활용, 지속 성장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을 강조
-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APEC이 선진국에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개도국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
 -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 해소 효과가 기대됨

ABAC와 ABF를 통한 민官 협력 체제 구축

○ 민官 협력 체제로 전환

- APEC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인식 아래 민간 기업인의 참여 확대 추구
- 「APEC 기업인 자문 회의」(ABAC)는 앞으로 각국 정상 및 각료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정기적 자문 예정
- 「기업인 포럼」(ABF)은 역내 기업인들이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그 결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 18개 APEC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기업인 25명씩을 선정 APEC 정상 회의에 참석

-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기업인들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각국 정상들이 직접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임

APEC 교육재단 설립, 정보기술협정 합의, 경제인 여행 카드제 시범 실시, 99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보류 등을 합의

○ 기타 APEC 정상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

- APEC 교육재단
 - APEC의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훈련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말 본격적인 활동 개시 예정
 -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1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
- 정보기술협정(ITA)
 - 97년부터 2000년까지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 통신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의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미국이 제안
 - 중국의 반대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개도국의 유보적 입장으로 당초 미국의 의도보다 후퇴하였지만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관련 상품 교역에 대한 무관세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 회의에서 협정 체결을 구체화할 예정
- APEC 경제인 여행 카드 제도(BTC)
 - 역내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査證없이 역내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제도
 - 우리나라, 호주, 필리핀이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 예정
- 신규 회원국 가입
 - 새 회원국 가입은 99년까지 보류기로 합의
 - 97년에 가입 기준을 마련하여 98년 신규 회원국 선정

3. APEC에 대한 長期 展望

APEC은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APEC은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역내 국가들의 이질성이 크며, 지역 패권주의의 위험성을 내포

○ APEC의 내부 문제점

- 역내에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인종적·정치적 배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간 경제 발전 단계가 서로 상이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 ASEAN간의 의견 차이, 아시아 지역과 非아시아 지역의 견해 차이 등이 존재하여 APEC이 단시일 내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모하는 것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
- APEC의 이면에는 아시아 시장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 이에 대항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주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4극간에 치열한 파워 게임 전개, 즉 집단 이기주의 표출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

APEC을 둘러싼 4극 체제의 이해 관계 대립이 존재

○ APEC을 둘러싼 4극 체제의 이해관계 대립

- 美國: 「강력한 APEC」 지향
 - 세계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중국·동남아 시장의 「日本化」를 봉쇄, APEC을 통해 아시아를 미국 주도 체제로 구축
 -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 주요 파트너를 일본에서 중국으로 대체하려는 전략을 APEC 내에서 시도
- 日本: 「약한 APEC」 지향
 - 일본의 對아시아 전략의 원칙은 「달러圏으로 부터의 자립」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門블록」의 구축임
 -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적극적 자세로 돌변하자 뒤늦게 APEC의 主流에 합류 노력
- ASEAN 國家: APEC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
 - 싱가포르는 자유 무역의 빠른 실시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AFTA 설립의 목표 연도를 2003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하는 한편 APEC의 「自由化」 일정에 있어서도 미국 입장 지지

- 말레이지아는 APEC의 결성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이며, 백인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공동체인 EAEC(東아시아경제협의회)를 지지
-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는 역내의 경제 블록의 결성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¹⁾
- 中國
 - 역내 華僑國家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언권을 높이면서 美·中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로서의 부상을 목표로 함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역내 강대국(특히 미국)의 주도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 마련에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 하면서 회원국간의 이해 조정 통한 독자성 확보 노력

장기적으로 APEC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위의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회원국간의 협력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APEC의 접근 방식을 WTO에 접목시킴으로서 WTO의 발전에 기여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경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 APEC의 진전은 기존의 지역주의를 개방적으로 만드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
 - APEC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 마찰에서 야기된 미국시장의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완화
 - APEC을 통한 역내 다이내미즘의 유지는 지역 전체의 공동 번영으로 귀결될 것이며 다자간 교역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1)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APEC을 통해 보다 광활한 시장접근이 용이하고 기술과 자본의 이전을 보장받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APEC 협정 이전에도 역내의 개방경제체제로부터 경제적으로나 非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 왔다는 점에서 APEC 자체 결속에는 다소 수동적임

Ⅲ. APEC과 우리의 對應 方向

- (필리핀 APEC에 거는 期待)
 - 96 필리핀 APEC의 핵심 의제는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각국의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수립, 채택하는 것임
 - 우리 나라는 OECD 가입으로 인한 개방 일정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APEC에서 추가적 개방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 따라서 여타 회원국들의 행동계획에 우리 경제의 대외 진출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APEC 비즈니스 포럼(ABF)은 우리 기업인들이 APEC 회원국의 정상 및 기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場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 (APEC에 對한 對應 方向)
 - APEC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기구이므로 APEC에 적극 참여·활용할 필요가 있음
 - APEC의 기본 방향인 「개방적 지역주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
 - 미·일·중·ASEAN 대립 구조의 중재자 역할 수행, 우리의 位相 제고
 - 정부와 기업이 연계한 실리적 외교를 전개
 - 동북아 안보 체제의 유지와 남북 문제의 해결의 場으로 적극 활용

1. 96년 필리핀 APEC後의 期待

96 필리핀 APEC의 핵심 의제는 각국의 행동 계획을 수립, 채택하는 것임

- 필리핀 APEC의 핵심 의제는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각국의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채택하는 것이었음
 - 우리나라는 APEC 무역·투자 자유화 이행 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UR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 및 최근 OECD 가입에 따른 경제 행정 규제 완화 계획 등 세계화 추진 계획을 반영한 실천 계획을 제출
 - OECD 가입으로 인한 개방 일정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PEC 실천 계획에 개방 일정을 제시할 필요는 없음

ABF에 참여를 통해 APEC의 향후 방향 설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유도

- APEC 비즈니스 포럼(ABF)은 우리 기업인들이 APEC 회원국의 정상 및 기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場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APEC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가장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ABF에 적극 참여, APEC의 향후 방향 설정을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각국이 실천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조치는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

- MAPA에 따라 각국이 내년부터 실천할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조치는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을 가진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이 지역의 인프라 건설 수요는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협력자금'(EDCF)를 활용하여 이들 국가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 가능

2. APEC의 活用

APEC의 기본 방향인 개방적 지역주의 유지

- 우리나라는 APEC 이외의 다른 지역 기구에는 가입하지 않으므로 APEC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APEC의 기본 방향인 「개방적 지역주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
 -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시아 경제권과 北美 경제권의 분리 움직임을 견제
 -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와 NAFTA의 대항 세력으로 존재 의의를 갖기 위하여 EAEC(동아시아 경제협의체) 운영을 구체화²⁾

2) 당초 마하티르 구상에 의한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의 아시아 블록 형성 구상은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에 反하는 요소가 있으나, EAEC의 문호를 개방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非NAFTA 각국을 모은 퍼시픽아시아협의체로 발전한다

- 또한 ASEAN 협력 강화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적극 경계
 - 마지막으로 ASEM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럽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 세계 경제의 단일화에 기여
-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수행**
- 4極(미·일·중·ASEAN) 대립구조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位相을 제고
 - 신흥공업국의 선두 주자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
 - 향후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 대상 범위의 설정 및 관세 문제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亞·太 지역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경제 외교 전개
- 우리 기업의 경우 중국 및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협조적 무역체계 구축**
- 미·일 편향적인 동남아 경제 판도에 집중적 투자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연계한 실리적 외교를 전개
 - 동남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제거
 - APEC내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서 건의하고 있는 'APEC Visa'(BTC) 구상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 우리 기업의 경우 빠른 속도로 공업화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조적 무역체계 구축
- 북한의 APEC 가입을 적극 유도, 남북 문제 해결의 場으로 활용**
- APEC을 동북아 안보 체제의 유지와 남북 문제의 해결의 場으로 적극 활용
 - APEC 역내 개도국의 개방화에 대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 향후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
 - 나아가 북한의 APEC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도발 억제 및 북한 경제의 개방화를 APEC 수준에서 추진

(이원호, 전민규)

면 EU와 NAFTA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음.

<附錄> APEC 關聯 資料

1. APEC의 現況
2. APEC 國家의 主要 經濟 指標
3. APEC의 組織圖
4. APEC의 比重
5. 主要 略語 一覽

<要約>

○ (意義)

- 60년대부터 지속되던 민간의 차원 아·태 경제 협력 논의가 1989년부터 정부 차원으로 승격
-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하여 WTO 체제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추진하며 세계 경제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

○ (設立 背景)

- 아·태 지역의 성장 잠재력 유지 및 확충과 성장 지속을 위한 개방적 교역 질서 확립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정부간 협의체 필요성을 각국이 인식

○ (重要性)

- 미국, 일본 등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과 아시아 신흥공업국, ASEAN 등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개도국이 위치하여 규모와 역동성 면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

○ (沿革)

- 1989년 발족 이후 1992년까지 4차례의 연차 총회를 가졌으며 1991년 '서울선언'으로 APEC의 목표, 활동 범위, 운용 방식 등을 명문화
- 1993년 시애틀 회담에서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
- 1994년 보고르 선언 채택
 -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안 마련
- 1995년 오사카 Action Agenda 채택
 -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개별 이행 계획서를 96년 중으로 작성, 9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부록 1> APEC의 現況

1) APEC의 意義

亞·太 지역을 포괄
하는 정부간 광역
협력체

○ APEC은 NAFTA, AFTA 및 CER 등 역내의 소지역 협력체를 포함하는 광역 협력체로서 60년대부터 있어온 민간 차원의 다양한 亞·太 경제 협력 논의가 APEC을 통해 비로소 정부간 공식 차원의 협의로 승격되었음

< 亞·太 지역의 주요 경제 협력 지역 기구 추진 현황 >

경제 협력체	회원국	추진 경과	성격 및 내용
APEC	NAFTA 3개국 ANIES 4개국 ASEAN 5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칠레 등 18개국	○89년 이래 4차례 회담 개최 ○93년부터 정상회담으로 격상	○역내의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의 경우는 2020년까지 무역의 완전 자유화 천명(94년) -무역진흥, 인력개발, 에너지부문 등에서 협력추진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92년 8월 협상안 합의 ○94년 1월부터 추진	○향후 15년내 자유 무역권 형성 -교역장벽 철폐 -경쟁환경 조성 -투자기회 확대 -지적소유권 강화
AFTA	ASEAN 7개국	○92년 1월 합의 ○93년 1월부터 추진	○1993~2003년 기간중 자유 무역권 형성 -공동특혜관세(CEPT) 도입 -非관세장벽 철폐
EAEC	ANIES 4개국 ASEAN 6개국 일본, 중국, 미얀마 등 13개국	○90년 말레이시아 首相(마하티르)이 제안	○국제협상시 공동 보조 ○역내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강화
CER	호주, 뉴질랜드	○83년 3월 호주-뉴질랜드 양국간 조인	○경제·무역 협정으로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철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 설립

**WTO 체제의 보완
적인 역할 수행**

- EC의 例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경제 통합”과 비교되는 “시장 주도적 경제 통합”³⁾을 표방함으로써 WTO 체제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WTO는 개방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회원국간 협력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
 - APEC은 자유화, 원활화와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심화와 협력 강화간의 조화를 도모
 - 따라서 이러한 APEC의 접근 방식을 WTO에 접목시킴으로서 APEC은 WTO의 발전에 기여함

**개방적 지역주의의
표방으로 세계 경
제의 단일 시장화
촉진**

-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표방으로 세계 경제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함
 - APEC 내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북미와 아시아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양 블록의 상호 대립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나아가 EU와의 협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APEC은 유럽, 미주, 아시아의 3극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세계 경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실험 무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APEC의 設立 背景 및 經過

**개방적 세계 교역
질서의 수호를 위
한 亞·太 지역 차
원의 공동 대응**

- APEC 성립의 배경
 - 아·태 지역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 유지 및 확충과 개방적 교역 질서의 확립 필요성 인식
 - 역내적으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경제력이 부상하고 교역·투자 분야 등에서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교역 환경 개선과 상충하는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 채널이 필요함
 - 한편 역외적으로 아·태 지역 고도 성장의 전제 조건이

3) 과거 태평양 지역의 고도 경제 성장이 개방적이고 대외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채택에 따른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힘입었으며, “시장 주도적 경제 통합”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되어 왔던 개방적 세계 교역 질서의 수호를 위한 아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1989년 발족 이후
매년 연차 총회를
가지고 있으며
1993년 부터 정상
급 회담으로 격상

○ APEC 회담의 경과

- 1989년 발족 이후 92년까지 4차례의 연차 총회
 - 10개 분야(무역 및 투자 자료 검토, 무역 진흥, 투자 및 기술 이전, 인적자원 개발, 에너지 협력, 해양자원 보존, 전기통신, 교통, 관광, 수산)에 대한 협력 사업을 전개
 - 91년 '서울 선언'으로 APEC의 목표, 활동 범위, 운용 방식 등을 명문화
 - 싱가포르 소재 상설 사무국 설치 등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 조성
- 93년 11월 시애틀 회담: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
 - 무역자유화의 촉진 및 이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하도록 결의
 - 그 결과로 무역투자위원회(CTI)가 공식적으로 발족 (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피선)
-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담: 「보고르 선언」 채택
 - APEC을 법적으로 상설기구화하는 발판을 마련
 -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 마련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달성 선언)
 - 역내 국민들에 대한 경제 성장의 혜택 확산, 교육 및 훈련의 개선, 역내 인프라의 극대화 및 풍부한 자연 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공동 협력
- 95년 일본 오사카 회담: 「오사카 Action Agenda」
 - 관세, 비관세 조치, 투자, 서비스 등 15개 과제에 대한 자유화·원활화 계획과 인력 개발 등 13개 과제에 대한 경제·기술 협력을 96년내에 작성하여,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APEC 각료 회의 및 정상 회의 개최 현황 >

	개최일자	개최지	참가국	합의사항
제 1 차	1989. 11	호주 캔버라	12개국*	· UR 교섭 및 다국간 무역 개방 추진
제 2 차	1990. 7	싱가포르	12개국	· 역내 에너지 협력 등 7개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중국, 대만, 홍콩 등의 가입
제 3 차	1991. 11	서울	15개국**	· 서울 APEC 선언 채택 · UR의 연내타결을 위한 정치적 결의
제 4 차	1992. 9	태국 방콕	15개국	· APEC 사무국의 설치 및 예산제도 도입 · 역내 자유무역추진
제 5 차	1993. 11	미국 시애틀	15개국	· 무역투자위원회(CTI) 설립
제 6 차	1994. 11	인도네시아 보고르	18개국***	· 보고르 선언 채택
제 7 차	1995. 11	일본 오사카	18개국	· 오사카 Action Agenda 채택

* ASEAN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태국),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12개국에서 중국, 홍콩, 대만이 추가됨

*** 15개국에서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아, 칠레 등 3개국이 참가

3) 세계 경제에서 APEC 役割의 重要性

20억 인구, 세계 GNP의 57%,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거대한 개방적 경제 블록

- 亞·太 지역은 미국, 일본 등 세계 1~2위 경제권과 매년 10% 이상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하는 개발도상국이 위치하고 있어 세계 경제를 주도
 -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 아래 세계 무역 자유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
 - 세계 인구의 40%, 세계 GNP의 57%, 세계 교역량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인 APEC에서 회원국간의 쟁점을 조화·수렴시키는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
 - APEC이 亞·太지역에서 중심적 경제기구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EU, NAFTA 등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 블록의 확산 추세를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됨
 - 96년 3월 ASEM(Asia-Europe Meeting)의 결성은 APEC의 발빠른 행보에 영향을 받은 EU측의 Initiative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부록 2> APEC 國家의 主要 經濟 指標(1)

- APEC은 미국, 중국 등과 같은 대국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소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국들을 보유
- 부국과 빈국의 격차도 커서 역내 최빈국인 중국과 최부국인 일본은 1인당 GDP 면에서 110배의 차이를 가짐
- 역내 회원국중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과 ASEAN이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권역	국가	인구 (만 명)	면적 (만 km ²)	GDP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경제 성장률 (%)	외환 보유고 (억 달러)
미 주	미 국	26,303	937.2	72,458	26,837	2.0	747.8
	캐나다	2,961	997.1	5,646	19,070	2.2	150.5
	멕시코	9,478	195.8	2,587	2,747	-6.9	168.5
	칠 레	1,420	75.7	620	4,355	8.3	141.4
동북아	일 본	12,496	37.8	46,746	39,943	0.8	1,832.5
	중 국	128,800	959.7	6,889	361	10.2	753.8
	한 국	4,445	9.8	4,517	10,076	9.0	326.8
	대 만	2,130	3.6	2,640	12,044	6.1	903.0
	홍 콩	610	0.1	1,425	24,386	4.6	572.0
오세아니아	호 주	1,805	768.2	3,511	17,842	4.8	199.0
	뉴질랜드	354	27.1	598	16,349	2.4	44.1
	파푸아뉴기니	407	46.2	43	1,059	-4.5	2.6
ASEAN	인도네시아	19,375	191.9	1,730	884	7.5	30.0
	태 국	6,021	51.4	1,619	2,399	8.5	359.8
	말레이시아	2,010	33.0	810	3,836	9.5	237.7
	필리핀	6,831	30.0	766	1,079	5.7	63.7
	싱가포르	299	0.06	549	18,365	8.9	687.0
	브루나이	28	0.6	40	14,500	-4.1	30.0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September 1996.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19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별정보」, 1996. 5.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6. 3.
 주 : 95년 기준 통계치

<부록 2> APEC 國家의 主要 經濟 指標(2)

- 우리나라는 회원국중 수출 규모는 6위, 수입 규모는 5위를 기록
- 아시아신흥공업국들과 ASEAN 국가들은 대체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달성하였으나, 중국, 멕시코 등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회원국들은 낮은 실업률을 보였으나 미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 회원국들은 높은 실업률을 기록

권역	국가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물가상승률 (%)	실업률 (%)	환율 (현지화/US\$1)
미 주	미 국	5,749	7,494	2.7	5.6	-
	캐나다	1,844	1,638	2.2	9.5	1.375 C\$
	멕시코	798	724	35.0	7.5	7.589 N Pesos
	칠 레	165	153	8.2	4.5	410.73 Pesos
동북아	일 본	4,039	3,067	-0.1	3.2	107.92 Yen
	중 국	1,850	1,256	16.9	2.9	8.322 Yuan
	한 국	1,252	1,351	4.5	2.0	813.3 Won
	대 만	1,117	1,036	3.7	1.8	27.49 NT\$
	홍 콩	1,723	1,912	9.2	3.6	7.73 HK\$
오세아니아	호 주	514	578	4.6	8.9	1.294 A\$
	뉴질랜드	137	139	3.8	6.2	1.442 NZ\$
	파푸아뉴기니	28	14	15.0	-	1.285 Kina
ASEAN	인도네시아	454	406	4.5	3.1	2,311 Rupiah
	태 국	436	532	5.7	2.5	25.27 Baht
	말레이시아	747	786	3.4	2.8	2.49 Ringgit
	필리핀	174	265	8.1	9.5	26.23 Pesos
	싱가포르	1,182	1,244	1.7	2.7	1.41 S\$
	브루나이	-	-	-	-	1.41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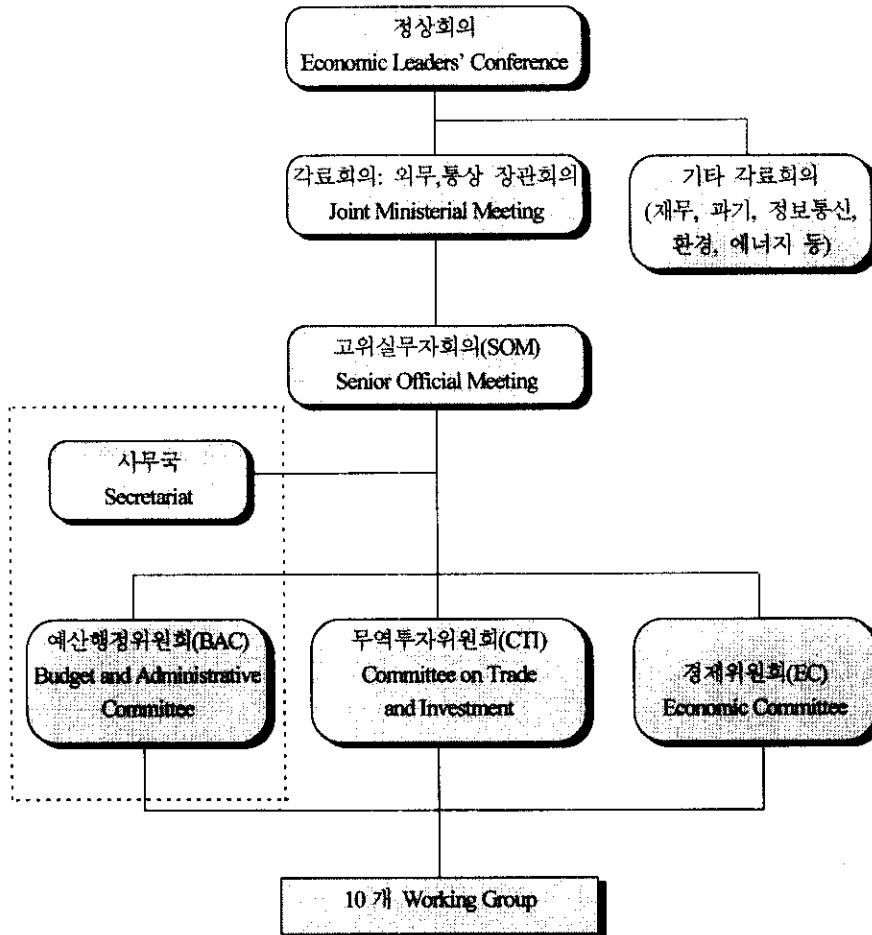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September 1996.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19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별정보』, 1996. 5.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6. 3.

주 : 환율은 1996년 8월말 기준이며 일부 국가는 7월말 기준, 기타 통계는 95년 기준

<부록 3> APEC의 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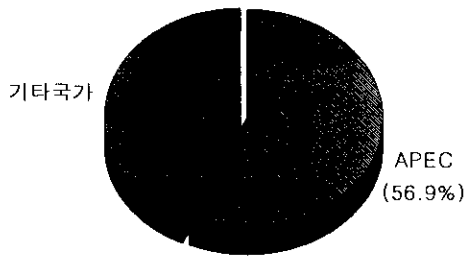
주 : 점선안은 APEC의 행정 실무 담당 부서

- 정상회의는 1993년 시애틀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있음
- 외무, 통상 장관 각료회의는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있음
- 고위실무자회의는 매년 4~5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각료회의의 실무적 준비와 의제를 협의
- APEC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으며, APEC의 각종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
- 3개 위원회와 10개 Working Group이 각종 사업의 실무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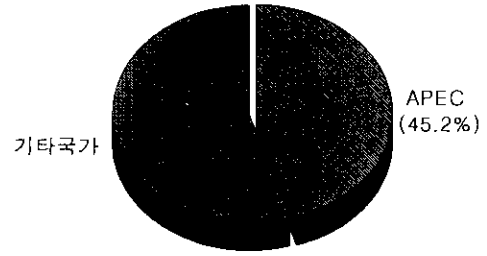
<부록 4> APEC의 比重

(1) 세계 경제에서 APEC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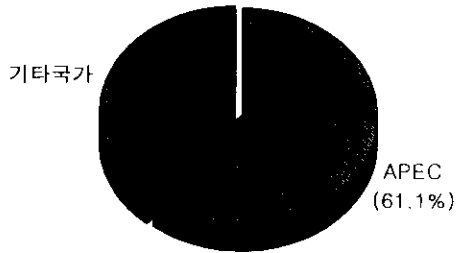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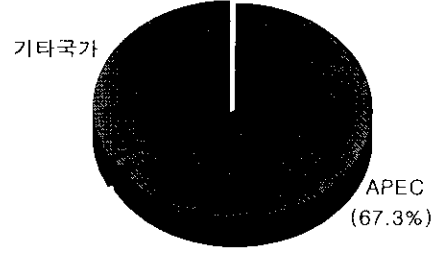
교역량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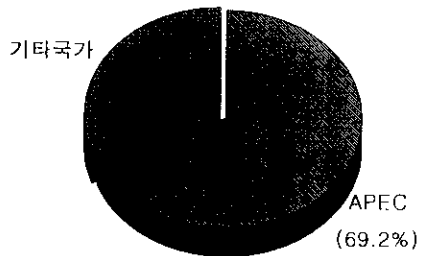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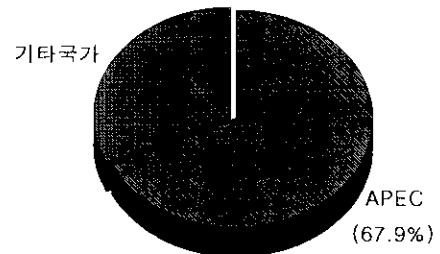


(2) 한국 경제에서 APEC의 비중

교역량



해외직접투자



<부록 5> 主要 略語 一覽

略語	原 語	意 味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인 자문 회의
ABF	APEC Business Forum	APEC 기업인 포럼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NIEs	Asian New Industrialized Economies	아시아신흥공업지대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회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M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BAC	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APEC 산하 예산행정위원회
BTC	Business Travel Card	경제인 여행 카드
CAP	Colletive Action Plan	공동 실천 계획
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공동 특혜 관세
CER	Closer Economic Relation Agreement	호주-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
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APEC 산하 무역투자위원회
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동아시아경제협의체
EC	Economic Committee	APEC 산하 경제위원회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우리나라의 경제발전협력기금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IAP	Individual Action Plan	국별 실천 계획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MAPA	Manila Action Plan for APEC	마닐라 실천 계획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지대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APEC 산하 고위실무자회의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라운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